

일반논문

남성의 자녀돌봄 인식 및 시간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경상북도 30~40대 기혼남성을 중심으로*

권진** · 손능수*** · 김진욱****

〈국문초록〉

이 연구는 경상북도 남성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가진 자녀 돌봄에 대한 인식과 일일 육아시간이라는 실태를 종속변수로 하여 개인적 요인, 가구 요인, 직업적 요인, 성역할 인식의 영향력을 다중회귀분석으로 검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 전통적 남성성의 평균점수와 성평등 한 인식의 평균점수가 둘 다 높았다. 이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8)의 과도기적 남성성의 특성을 부분적으로 지지한다는 결과로 보이며, 경상북도 남성들이 사회 규범적으로 여전히 유효한 가부장적 남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새로운 사회적 분위기인 성평등한 인식을 함께 가짐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 자녀 돌봄에 대한 인식과 일일 육아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공통된 원인변수는 '성평등 인식' 이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성평등에 대한 교육과 노력이 중요함을 방증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들을 토대로 하여 현재 시행 중인 일가족양립정책과 성평등 관련된 정책적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실시하였다.

주제어: 남성성, 자녀 돌봄 인식, 육아 시간, 일가족양립, 성평등 인식

* 본 연구는 경북행복재단에서 수행한 정책연구보고서(2020-03)의 일부를 활용하였으며,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주최 “전환의 시대, 다시 남성의 삶과 남성성을 질문하다” 추계학술대회(2021년 10월 29일)에서 발표한 초안을 기초로 하였음.

** 주저자, 예명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phd.kj@kakao.com)

*** 교신저자, 경북행복재단 선임연구원(sonyohan664@ghf.or.kr)

**** 공동저자,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sspjwk@sogang.ac.kr)

© 2021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1. 서론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 속에서 돌봄 역할을 수행하던 사회적 기능들이 가다서다를 반복하였다. 지금은 소위 위드코로나 라고 하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목전에 두고 있기는 하지만, 대유행의 파동이 커졌던 시점에는 모든 집단적 모임이나 공식적 돌봄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어린 자녀들을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보육 / 교육 기관에 보내어 얼마간의 시간이라도 돌봄의 부담을 덜었던 가구에서는 공식적인 돌봄의 영역이 사라지자 그야말로 큰 혼란을 겪었고, 이 시기에 직장을 쉬거나 퇴직한 부모들이 속출하였다.

엄밀하게 이야기 하자면 직장을 쉬거나 퇴직한 것은 여성, 즉 엄마들이었다.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남성의 육아휴직을 비롯하여 가정 내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많은 논의가 있어왔으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다시금 그 이전의 시대로 돌아간 느낌이다. 돌봄과 사회활동이라는 두 영역이 트레이드 오프(trade off) 관계가 아니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어왔지만 다시금 주저앉아 버린 듯한 현실은, 위기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기보다 이전의 남성생계부양자 모델로 회귀한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든다.

전사회적으로 코로나라는 큰 파도를 맞은 것은 어쩔 수 없으나 그 파도는 성별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초등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의 49.3%는 다니던 직장에서 고용조정과 관련된 직간접적 경험을 하였으며, 이는 경영의 악화에 따른 고용 조정에 있어서 여성을 주 타겟으로 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1). 또한 같은 자료에서 막내 자녀가 어릴수록 배우자나 가족으로부터의 퇴직 권유가 더 높았으며, 유자녀 여성 10명 중 7명은 일과 돌봄의 이중 부담으로 인하여 퇴직을 심각하게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돌봄이라는 문제가 안정적으로 해결

되지 않으면 여성의 사회생활은 여전히 요원한 일이며, 이미 이러한 맥락에서 퇴직을 선택한 여성들은 다시금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매우 힘들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성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들은 재택근무나 직업 안정성 등에 제한되어 있었고, 여성의 퇴직이나 돌봄-노동의 이중적 부담과 연결되어 조명되지 않았다. 단적인 예로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은 세대주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젠더에 민감하지 못한 한국 사회와 정부의 인식을 스스로 드러내었다.¹⁾ 미시적인 세계에서 남성은 배우자의 퇴직을 권유하고, 정부는 가부장적인 인식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여성을 가정 내 역할에 머무르도록 밀고 당기는 형국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남성이 성평등한 '인식'을 이전에 비해 많이 보인다는 것이다.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통하여 가족 내 성역할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남성의 임무는 밖에서 돈 버는 것이고 여성의 임무는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에 동의하는 비율('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4.5%에 불과하였고,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약 85.4%에 달하였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가구소득에 기여해야 한다'는 명제에 약 74.5%가 동의하였다. 한편, '여성의 전일 근로가 가족생활을 힘들게 한다'는 명제에 있어서 약 38%가 동의하였고, 약 51%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미취학 아동의 어머니가 일할 경우 미취학 아동에게 좋지 않다'는 명제에 대해서도 약 40%가 동의하였고 44%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연합뉴스 2020.4.9.일자. "가족 내 성역할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성역할 인식은 가구소득 또는 맞벌이 영역에서 '진보'하였고, 돌봄에 있어서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석될 수 있는 결과이다. 즉, 성역할 인식이 성평등한 방향으로 전환되고는 있으나 영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여전히 전통적인 영역에 남아있는 것은 가구 내 돌봄에 대한

1) 『여성신문』, 2021.6.30, "1차 재난지원금 세대주 일괄 지급, 여성 접근권 제한돼".

부분일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인식의 측면에서 변화의 양상을 보이는 것은 국내의 몇몇 연구에서도 발견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2017년과 2018년에 수행한 남성성 관련 연구(마경희 외, 2017; 마경희 외, 2018)에서는 남성성의 변화를 세밀하게 포착하여 제시하였는데,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형성되었던 가부장적이고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영향력이 여전히 강하면서도 가사와 양육이라는 '여성적 역할'에 대하여 보다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는 남성성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남성들은 남성성의 긴장을 겪고 있고, 세대가 젊어질수록 전통적 남성성과 거리가 멀어지면서도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제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남성의 자녀돌봄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육아휴직제도의 사용과 관련되어 남성의 경험을 분석한 연구들이 눈에 띈다(김양지영, 2016; 김진욱·권진, 2015; 나성은, 2014). 이 연구들은 질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자녀돌봄을 실천한 소수의 남성 사례를 분석하였고,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지만 돌보는 남성성의 존재를 확인함과 동시에 전통적 남성성의 변화를 가늠해볼 수 있는 자료이다. 또한 최근에 수행된 남성의 자녀돌봄과 관련된 연구로는 자녀돌봄 시간에 초점을 맞춘 연구(이현아·김선미·이승미, 2016)와 양육참여 인식(유지영, 2018)에 관한 연구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김선미 외(2016)의 연구에서는 남성의 인식이나 태도 변인 보다는 '정서퇴근'이라는 근로 요인이 자녀 돌봄 시간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지영(2018)의 연구에서는 성역할 인식 변인이 주요한 것으로 나타나 상반된 결과를 보인다. 공통된 것은 연령의 효과인데,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돌봄에 관여할 가능성이 높았고 이는 신세대 남성들이 기성세대 남성에 비해서 보다 자녀돌봄에 친화적인 특성을 보일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한편 통계청 생활시간 조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 기혼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2019년 기준으로 64분으로 나타나며, 그 중 가정관리는 48분이었고 가족돌봄은 16분 정도를 차지하였다. 20년 전인 1999년에는 가사노동 시간 전체 36분이었고, 가정관리 25분과 가족돌봄 11분인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여성의 경우 1999년에 하루 중 270분을 가사노동에 사용하였고, 2019년 현재 225분으로 나타난다. 남성의 성평등한 인식의 부분적이지만 의미 있는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러한 인식과는 큰 상관성이 없어 보이는 실증자료라고 할 수 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많은 연구들에서 남성의 자녀돌봄이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고 하면서 남성의 가정생활을 장려하고 특히 자녀 돌봄에 시간을 할애할 것을 주장한다. 그러한 면에서 일 가정양립 관련 제도들은 남성이 집안에 머무르며 특히 육아에 ‘참여’하도록 하는 시간의 보장에 초점을 맞춘다. 마치 시간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육아에 주도적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듯하나,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한국 남성들에게 있어서 자녀양육의 일차적인 책임이 여성에게 있고 동시에 맞벌이를 통해 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인식이 공존하는 한 남성은 여전히 육아를 비롯한 가정생활에 주변인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경상북도라는, 대한민국에서 가부장의 이미지를 가장 강하게 가지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3,40대의 기혼남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²⁾. 해당 연구대상자들의 자녀육아와 관련된 인식과 실태를 일일 육아참여 시간과 자녀 돌봄에 대한 인식 변인을 통하여 살펴보고 이 변수들의 변화량을 어떤 변수들이 설명해주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실태라고 할 수 있는 육아참여 시간과 인식이라고 할 수 있는 자녀돌봄 인식 간에 어떠한 변수들이 같게 혹은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동시에 분

2) 대구 지역의 남성성과 돌봄 참여를 연구한 성지혜(2018)의 연구논문을 비롯하여, 경북지역 남성의 보수성과 가부장적 특성에 대한 논의는 ‘지역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된다.

석한 연구는 기존에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연구가 보다 발전적인 논의의 기초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만약 그 간극을 메울 수 있다면 향후 일가정양립이나 성평등 관련 정책에 어떠한 변인을 중심으로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3,40대 남성을 대상으로 이들의 일일 육아참여 시간과 자녀돌봄 인식을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함으로써 남성의 자녀 돌봄을 늘리고 가구 내에서 보다 성평등한 자녀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적, 실천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논의

1) 한국 남성의 자녀돌봄과 남성성의 변화

197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남성성에 대한 개념적 이해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당시의 남성성은 단일한 차원의 고정적인 속성으로 이해되는 것이었다. Smiler(2004)의 논의에 따르면 당시의 남성성은 사회문화적인 맥락에서 새로이 형성되는 성질로 여겨지지 않았고 단지 유전적이거나 자연적인 무언가로 간주되었다는 것이다. 남성성이라는 것은 여성성의 반대편에 있는 개념으로서 남성성 아니면 여성성이라는 이분법적인 관점으로 성별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이 불과 몇 십년 전이었다.

80년대 이후로 남성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남성성이라는 것이 내재되어 있어서 고정적인 성격을 보이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탈피하게 된다. 이러한 연구들에 따르면 남성성이라는 것은 사회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고 어떠한 보이지 않는 압력으로 인해 특정한 규범적인 속성을 따르게 되는 것이라는 관점으로 바뀌게 된다(Levant et al., 2007). 이

관점의 중요성은 남성성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따라야 할 규범의 하나라는 점이다. 성역할적 규범으로서 남성성은 남성으로서 가져야 할 인식과 행동양식을 특정한 성격으로 규정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전파된다. 남성성에 대한 전통적인 모델로는 다음의 네 가지가 제시되었는데, '여성성에 대한 거부', '지위와 성취에 대한 추구', '비 표현성과 독립성', '모험심과 공격성'이라는 것이다(Branon, 1985; 우성범, 2019). 이러한 남성성 문화는 이미 공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이상적인 남성성으로 기능하고 있었으며 남성들에게 이러한 기준을 주류적이고 바람직한 것으로 무언의 압력을 가하고 있었다.

한편 사회규범이라는 것이 시간과 공간의 변화에 따라 서서히 달라지게 마련인데,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전통적 남성성의 균열이 발생하였다는 연구 결과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2018년에 수행된 마경희 외(2018)의 연구는 전통적인 남성성과 변화하는 남성성을 살펴보고 남성들 내부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특성들이 남성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전통적 남성성을 '성적·물리적 힘', '경쟁과 성공', '감정절제', '위계와 복종'이라는 4개의 차원으로 제시하였으며, 분석결과 전통적인 남성성의 규범에 대한 수용도가 높지 않았고 연령대, 소득수준, 주관적 계층의식이 낮은 경우에 전통적 남성성에 대한 동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연구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이 더 발견되었는데, 주관적 계층의식이 중상층인 남성은 요리나 가사역량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지만 실제 가사분담의 정도는 낮다는 점이다. 반면 주관적 계층의식이 낮은 하층의 남성들은 자신의 가사분담 역량에 대해서 낮게 평가하면서 실제로는 가사분담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마경희 외, 2018). 또한 군집분석 결과 전통적 남성성을 가진 남성이 42%로 가장 많았고, 비전통적 남성성은 23.8%로 가장 적었으며, 그 사이에서 과도기 적인 남성성을 보이는 비율은 34.2%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

있다. 연령대별로 보았을 때는 2,30대에 해당하는 청년층의 남성들이 보다 덜 경쟁적이고 여성성에 대한 수용도가 높다는 점에서 4,50대의 기성 남성층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남성성의 균열이 나타나고 있고 나름의 변화가 포착되면서 가장 큰 특성은 부드러운 남성성과 돌보는 남성성이라는 두 축의 부상이다(베이년, 2011). 특히 돌보는 남성성으로의 변화에 있어서 한국 사회에서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이 현실적인 힘을 잃어가고 있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보편화되면서 남성의 돌봄 참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 일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 한국 사회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이 비교적 늘어나고 있고, 가정생활에 집중하기 위하여 대안적인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남성들의 모습이 많아진다는 점은 전통적인 남성성에서 새로운 남성성으로의 변화가 보다 현실적으로 체감되는 사례들일 것이다³⁾.

남성성의 변화에 있어서 돌보는 남성성은 위에서 언급한 거시적인 사회경제적 변화에서도 기인하지만,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한 재조명과 부성권이라는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더해지기도 하였다. 일 중심으로 생계부양자 역할에만 몰두하다가 가정 내에서 외딴 섬과 같이 지내는 중년 남성의 경험은 아버지의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한 재조명으로 이어졌고, 이러한 아버지를 경험한 자녀 세대의 남성들은 가족 내에서 나름의 역할 수행을 통하여 보다 친밀한 관계를 맺고 일과 가정에서의 균형적인 삶을 가꾸어 나가 고자 한다. 이미 1960년대부터 바람직한 아버지상을 논의했던 서구의 경험(Pleck, 2009)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최근 몇 년 전부터 급격하게 주목받게 되었고 이러한 가운데 좋은 아버지에 대한 막연한 의식으로 남성성의 과도기적 혼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즉, 기존의 전통적 아버지상이 일 중심

3) 고용보험 DB에 따르면 2020년 남성 육아휴직자는 27,423명으로 나타나 전년 대비 5,126명 늘어난 수치이며,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통계청 e나라지표, “출산 및 육아휴직 현황”)

의 삶을 통해 가족의 생계를 영위할 수 있는 부양자의 역할에 집중하였다면, 지금의 아버지는 거기에 대해서 가족 내에서도 일정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혼란을 겪을 수 있다(이동욱, 2014).

그렇다면 남성에게 있어서 돌봄은 어떠한 의미인가? 국내에서 수행된 남성 육아휴직자들의 자녀 돌봄 경험을 중심으로 논의하자면, 대부분의 한국 남성들이 막연하게 성평등한 인식을 가져왔으나 현실에서 맞닥뜨린 가사와 육아는 전혀 별개의 것이었다는 자기고백이 주를 이룬다(김진욱·권진, 2015; 최새은·정은희·최슬기, 2019). 돌봄이라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자녀돌봄이라는 영역에 한정되어 있고, 그나마 육아에 ‘참여’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스스로 성평등에 기여하는 남성으로서 허구적인 보람을 느껴왔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을 통해서 24시간 동안 온전히 영유아를 돌보는 과정은 이러한 기존의 생각들을 여지없이 무너뜨렸고, 돌보는 과정을 통해서 부성(fatherhood)이라는 것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자녀 돌봄이라는 것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경험을 통해서만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이를 위하여 육아휴직과 같은 제도의 부모 할당을 통하여 성평등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부가 함께 일하고 함께 양육하는-을 다져나가야 함을 주장한다. 한편 이러한 연구들은 육아휴직자로만 구성된 양적연구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일반화시키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대구 지역의 남성성과 함께 돌봄 참여에 대한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난다.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아버지 세대의 남성성을 그대로 답습하기 보다는 돌봄을 실천하는 남성성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성지혜, 2018).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새로운 남성성을 실천할 수 있는 지역의 사회문화적 토양은 넘어야 할 거대한 산이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한국에서 대표적으로 ‘가부장’을 상징하는 지역에서도 남성들이 개별적으로 가진 성역할 태도는 성평등한 진보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뿌리 깊게 자리하고 가부장적인 문화와 여전히 일중심의 삶을 강조하는 기업의 문화는 돌보는 남성성의 가치를 절하하고 있었다. 한편 변화하고 있는 남성성을 대구지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은 기존의 전통적 남성성에서 돌봄 친화적인 남성성으로의 변화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였다.

2) 남성의 자녀돌봄 관련 이론적 논의

아버지 됨(fatherhood)과 아버지-자녀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해온 외국
의 경우, 아버지-자녀와의 긍정적인 관계성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연구결
과가 많이 있고 이를 통해 아버지 됨의 의미가 자녀와 가족 전체에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자녀의 입장에서 아버지와와의 관계성의 중요성을
논의하는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Ricks(1985)는 아버지와 자녀 간에 애정
적 관계를 형성하였을 경우에 자녀는 아버지로부터 친(親)사회적인 행동
을 배우고 건강한 자아개념을 형성하는 등 전반적인 삶에 있어서 능동적
이고 독립적인 특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한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수
동적일 경우에 자녀는 정서적 불안을 경험하거나 전반적으로 사회 행동의
발달이 저하되기도 한다. Poulter(2006)는 아버지가 자녀와 애정적인 관계
를 맺는 경우에 보다 정서적으로 자녀를 지지하고 적절한 가르침을 제공
하는 등 긍정적인 개입을 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자녀가 받는 긍정
성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적절한 역할이 애정적인 관계로부터 수반된다는
것으로 약간은 다른 긍정적인 효과이다. 반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애
정적이지 못할 경우에 아버지는 자녀와 직접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여 자
녀의 활동이나 놀이에 대한 참여가 적게 되고, 엄마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등의 맴도는 관계에 머무른다고 하였다. 보다 장기적인 관
점에서 Belsky(1984)는 어렸을 적에 가정을 통하여 긍정적인 사회화를 경

험한 아버지일수록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애정적 관계를 맺는다고 하였고, 반대로 부정적인 사회화 경험을 했을 경우에는 자신의 자녀에 대하여 부정적 양육 행동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어렸을 때 아버지와 경험한 성인이 되어서 자기의 자녀와의 관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남성의 육아와 이를 지원하는 정책이 미시적인 가구 체계나 사회 전반에 파급을 일으킨다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Ray et al.,(2008)은 유급 육아휴직 정책이 잘 시행되었을 경우에 해당 육아휴직 정책을 활용한 가족들의 행복감이 높아지고 나아가 사회의 성평등 규범이나 역할 모델에도 더 나은 효과성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국내에서 수행된 최지은·김현경(2019)의 연구에서는 직장에서 시행된 가족친화제도를 통하여 가족의 행복감이 높아졌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한다.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Duvander and Andersson(2006)은 성평등 정책과 남성의 육아 참여가 출산율 증가에 기여한다고 하였고, Duvander & Johansson(2019)의 연구에서는 스웨덴의 남성 육아휴직제도가 성평등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보았다.

한편 남성의 입장에서 육아에 적극적인 것이 남성 자신에게 긍정적이라는 연구결과도 다수 존재한다. 특히 영유아를 돌본다는 것은 전적으로 누군가에게 의존하여야지만 생존할 수 있는 대상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기본적인 생활의 욕구를 채워준다는 것이다. 동시에 자녀와 밀착해 있으면서 감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고, 자녀의 성장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는 발달적 과업들을 함께 해나가는 여정이기도 하다. 자녀를 돌본다는 것은 자녀를 통해 얻는 여러 차원의 성취감에 대한 기대로서 그 나름의 투자적인 성격을 가지기도 하지만,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통하여 돌봄자로서 정서적 만족감을 얻기도 하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김민성 외, 2014).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아버지가 자녀와 ‘왜’ 애정적인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설명해주고, 아버지의 자녀돌봄이 자녀에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를 보여주는 연구결과라고 하겠다. 즉 남성이 자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육아에 함께 하는 것이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한 부분이고, 나아가 사회적으로 장려될만한 부분임을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된 것이다.

남성의 자녀돌봄이 왜 중요하고 어떠한 효과를 보이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다면,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녀돌봄 시간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남성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하여 노동 중심의 삶을 살게 된 것은 하루 중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24시간의 대부분을 일터에서 보낸다는 것과 거의 같은 의미이다. 이는 자녀양육에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는 시간의 부족으로 이어지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입들은 주로 육아가 가능한 시간의 확보로 이어진다. 일가정양립 정책으로 통칭되는 정책적 개입들은 육아를 위해 휴직할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의 상실을 메꿔주고 직장에서의 지위를 보장해줌으로서 남성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남성의 자녀돌봄을 포함하여 가구 내 무급노동 참여를 설명하고 예측하는 이론은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협조적 적응 가설은 경제학에서 논의하는 합리적 선택에서 기인한다. 가구의 기능이 잘 작동하기 위하여 남성과 여성이 합리적인 방식으로 무급노동(또는 유급노동의) 시간을 나눈다는 것이다.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맞벌이 여부이다. 합리적 선택의 관점에서 보면 남성의 무급노동에 대한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여성이 유급노동에도 참여하고 무급노동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진욱, 2005; 허수연, 2008). 두 번째로 요구-반응 가능성 가설이다. 이 가설은 가정 내에서 무급노동에 대한 가정 내 요구에 따라서 남성의 무급노동 시간의 양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의 핵심에는 미취학 자녀의 존재가 달려 있다. 미취학 자녀는 부모

의 집중적인 관심과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성의 무급노동 시간을 결정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Craig, 2006). 세 번째로 계층화 가설이다. 이 가설은 남성의 학력이나 소득 수준, 직종에 따른 무급노동의 참여 시간을 설명한다(Esping-Andersen, 2009). 학력, 소득이 높고 직종에 있어서 화이트 칼라일 경우에 블루 칼라 직종의 남성에 비하여 더 많은 시간을 자녀돌봄 등에 할애할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젠더 가설을 들 수 있다. 이 가설에 따르면 개인적이거나 사회적으로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성 역할에 대한 관념이 무급노동을 결정하는 강력한 요인이라는 것이다(McHale and Huston, 1984). 젠더 가설을 실증하는 연구결과들은 상당히 흥미로운데, 우선 성평등한 인식을 가진 남성이 무급노동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경향을 보이면서도 가정 안에서의 역할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Evertsson, 2014). 일반적으로 남성의 성역할 인식이 성평등하게 전환되더라도 실제 행동은 그에 부합되지 않는다. 하지만 성평등한 성역할 인식을 보이는 남성들이 아내의 무급노동시간을 줄인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한다는 점은(이창순, 2014) 가구내 성평등에 있어서 새로운 함의를 주기도 한다.

3. 연구방법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 연구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상북도 남성을 대상으로 하여 자녀 육아와 관련된 두 가지 주요한 변인인 자녀 돌봄 인식과 시간에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이후에서는 이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와 변수의 선정 및 모델, 분석절차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분석 데이터

이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는 2020년도에 경북행복재단에서 수행한 “경상북도 남성 육아 참여 실태와 지원방안” 연구의 조사데이터이다. 이 데이터는 일·생활 균형의 논의에서 가족 내 남성의 역할이 점차 더 중요해짐에 따라서 자녀육아에 대한 남성의 참여 실태와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원 조사데이터에서는 경상북도의 유자녀 남성을 대상으로 하여 근로환경, 성역할 인식과 태도, 육아에 대한 참여정도 등을 물어보았고, 육아 참여 프로그램의 경험 및 욕구, 남성의 육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요 등을 파악하여 경상북도 남성의 육아 참여정도나 육아지원제도 이용현황 및 장애 요인 등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의 대상으로는 경상북도에 거주 중이고 막내 자녀를 기준으로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기혼남성으로 하였고, 조사결과 최종적으로 500명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표본 설계 과정에서 경북 지역을 도시, 도농복합, 농촌 지역으로 구분하였고, 자녀 연령의 경우 3세 계급 단위로 하여 영아(0~2세), 유아(3~5세), 아동(6~8세)으로 분류하여 각 그룹의 실제 인구수에 비례하여 조사를 완료하고자 노력하였다. 세부적으로 지역유형별 표본의 수 설계는 다음의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지역유형별 및 자녀 유형별 표본의 수

구분	세부지역	아동인구(명)	비율(%)	표본수
도시	포항/구미/ 경산/경주	110,371	62.0	310
도농복합	김천/안동/영주/영천/ 상주/문경/칠곡	48,568	27.3	136
농촌	군위/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 고령/성주/예천/봉화/울진/울릉	19,126	10.7	54

구분	세부지역	아동인구(명)	비율(%)	표본수
영아(0-2세)		47,718	26.8	134
유아(3-5세)		62,824	35.3	176
아동(6-8세)		67,523	37.9	190

자료: 경북행복재단(2020) 78,79페이지 재구성. 해당 인구수는 「주민등록인구통계(2019)」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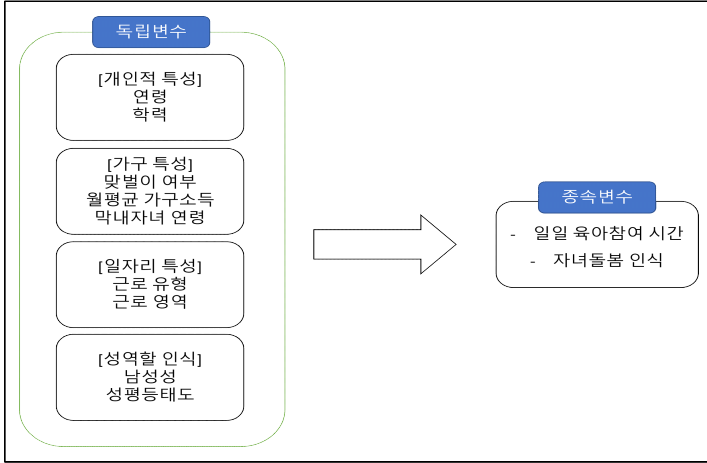
조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대면설문조사가 어려운 관계로 온라인 패널 조사를 주로 활용하였다. 설문지 개발은 해당 연구의 연구진이 초안을 작성하고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경상북도 기혼남성의 자녀돌봄 관련 시간과 인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연구모델에서 설정한 변인들을 대상으로 따로 데이터를 추출하였고, 원 데이터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20대, 50대 기혼남성을 제외한 493 케이스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연구의 모델과 변수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2) 분석 모델 및 변수 설명

이 연구의 분석 모델은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종속변수는 경상북도 3,40대 기혼남성의 일일 육아참여 시간(분)과 자녀돌봄 인식이다. 독립변수는 네 가지 요인으로 유형화하였다. 개인적 특성으로 연령과 최종학력을 넣었고, 가구특성으로 맞벌이 여부(맞벌이=1, 비맞벌이=0)와 월평균 가구소득, 막내자녀의 연령을 넣었다. 일자리 특성으로는 근로 유형(정규직=1, 그 외=0)과 근로 영역(공공 영역=0, 민간 영역=1)을 넣었고, 마지막으로 성역할 인식은 전통적 남성성과 성평등태도로 구분하여 모델에 투입하였다.

〈그림 1〉 연구모델



변수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2>에 신뢰도와 함께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변수들 중 측정도구를 활용한 변수는 ‘자녀돌봄 인식’과 남성의 ‘성역할 인식’ 두 가지 변수이다. 자녀돌봄 인식은 윤현경(2010)의 연구에서 아버지 양육참여에 해당하는 26문항을 활용하여 측정하였고, 해당 연구에서는 ‘발달적지지’,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 ‘자녀돌봄 및 지도’ 라는 세 가지 하위영역으로 세분되나, 이 연구에서는 하위변인들로 구분하지 않고 모든 항목의 평균값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원척도에서의 신뢰도는 .92로 나타나 높은 수준이었으며, 이 연구에서의 신뢰도 또한 .941로 나타나 매우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대표적인 문항으로는 ‘자녀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자녀를 공원이나 박물관 등에 데리고 간다’, ‘자녀의 기본생활습관을 가르친다’ 등이 있으며 각 항목은 리커트 4점 척도로 점수화 되었다.

남성의 ‘성역할 인식’ 변수는 김혜영 외(2008)에서 개발한 측정도구를 활용하였다. 해당 변수의 측정은 총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의 세 문항은 전통적 남성성에 대한 부분을 측정하고 뒤의 네 문항은 성평등 태도라고 볼 수 있다. 전통적 남성성에 대한 문항은 ‘집안의 중대한 일은 남

편이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집안의 모든 일은 최종적으로 남편의 책임이다', '가족을 위해 돈을 버는 일은 남편의 책임이고, 가정을 돌보는 일은 부인의 책임이다'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세 항목에 대한 원척도의 신뢰도는 .763이었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839의 신뢰도 계수를 나타내어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다음으로 성평등 태도에 있어서는 '자녀양육 책임은 부모 모두 같다', '부인도 남편과 똑같이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다', '맞벌이 부부는 집안일도 공동부담 해야 한다', '남편도 자녀양육을 위해 휴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네 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평등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해당 원척도의 신뢰도는 .663이었고, 이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829로 나타나 괜찮은 수준이었다.

〈표 2〉 변수 설명

구분	변수명	측정	출처 / Cronbach's α
종속변수	일일 육아참여 시간	분 단위 / 연속변수	-
	자녀돌봄 인식	26개 항목 / 리커트 4점 척도	윤현경(2010) / .941
독립변수	연령	세 / 연속변수	-
	학력	고졸 이하=1 전문대 졸 이하=2 4년제 졸 이하=3 대학원 이상=4	-
	맞벌이 여부	맞벌이=1 비맞벌이=0	-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단위 구간 / 서열변수	-
	막내자녀 연령	세 / 연속변수	-
	근로 유형	정규직=1 비정규직=0	-
	근로 영역	공공 영역=0 민간 영역=1	-
	전통적 남성성	높을수록 전통적 남성성 / 리커트 4점 척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 .839
성평등 태도	높을수록 성평등 지향 / 리커트 4점 척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 .829	

4. 분석결과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조사에 참여한 경상북도 기혼남성 중 493케이스를 최종적인 연구의 표본으로 하였고 그중 30대는 48.1%(237케이스), 40대 51.9%(256케이스)로 나타나 연령대별 비율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을 보았을 때는 고졸 이하의 응답이 8.7%(43케이스)로 가장 적었고, 전문대졸 이하가 25.2%(124케이스), 4년제 대학 졸 이하가 54.4%(268케이스)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대학원 이상의 고학력자는 11.8%로 58케이스 정도였다. 조사대상자 중 자녀수가 2명이라는 응답이 48.3%(238케이스)로 나타나 가장 많았으며, 1명이라는 응답이 46.5%(229케이스)로 나타났다. 3명 이상이라는 응답은 5.3%(26케이스)로 나타나 가장 적었다. 맞벌이 여부에 있어서는 맞벌이 한다는 응답이 57.2%(282케이스)로 나타나 과반 이상이었고, 월평균 가구소득은 300만 원 이상 4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28.4%(140케이스)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근로유형은 정규직 근로자가 81.7%(403케이스)로 대부분이었고, 이는 온라인 조사의 특성상 pc나 스마트폰의 조작이 빈번한 사무직의 접근성이 높은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규직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 결과와 해석에 대한 일반화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다. 근로 영역에 있어서는 민간 영역에서 근무한다는 응답이 75.7%(373케이스)로 대부분이었다.

〈표 3〉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N=493)		빈도	퍼센트
연령대	30대	237	48.1
	40대	256	51.9
최종학력	고졸 이하	43	8.7
	전문대졸 이하	124	25.2
	대학교졸 이하	268	54.4
	대학원 이상	58	11.8
자녀수	1명	229	46.5
	2명	238	48.3
	3명 이상	26	5.3
맞벌이 여부	외벌이	211	42.8
	맞벌이	282	57.2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13	2.6
	200~300만 원 미만	70	14.2
	300~400만 원 미만	140	28.4
	400~500만 원 미만	113	22.9
	500~600만 원 미만	87	17.6
	600만 원 이상	70	14.2
근로유형	정규직 근로자	403	81.7
	비정규직 근로자	36	7.3
	자영업	36	7.3
	기타	5	1.0
근로영역	공공	120	24.3
	민간	373	75.7

아래 〈표 4〉는 이 연구의 주요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로서, 종속변수와 척도로 측정된 독립변수인 전통적 남성성과 성평등 태도에 한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연구대상자들은 하루 평균 113분 정도 육아에 참여한다고 응답하였다. 표준편차는 87.985로 나타나 일일 육아참여의 분포는 꽤

넓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평균 113분은 하루 평균 2시간 가까이 육아에 참여한다는 것으로서 기존의 현황 데이터와는 꽤 큰 차이를 보이는 수치이다. 육아 참여에 대한 남성들의 개념적용이 상당히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는데, 이 연구조사에서는 육아 참여에 대한 개념을 엄밀하게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아에 대한 참여가 육아와 관련된 가사노동이나 직접적으로 육아를 하는 배우자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추후의 육아 참여시간을 조사할 때에는 ‘육아’라는 영역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실제 행동에 기반한 시간을 답할 수 있다면 보다 현실을 잘 반영할 것으로 여겨진다. 자녀돌봄 인식은 4점 만점에 평균 3점을 보일 정도로 높은 편이었고, 표준편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볼 때 평균점수에 응답이 많이 몰려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조사응답자들이 자녀돌봄에 대한 수준이 높은 편이라는 자기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통적 남성성은 4점 만점에 2.7점을 보여 중간값인 2.5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보였다. 성평등한 태도에 대한 문항의 평균은 3.2점으로 나타났고 이는 전통적인 남성성에 대한 동의 정도 보다 높은 것이다.

〈표 4〉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결과

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일일 육아 참여시간(분)	0	720	113	87.985
자녀돌봄 인식	1.10	4	3.0	.449
전통적 남성성	1	4	2.7	.682
성평등 태도	1.5	4	3.2	.561

아래 〈표 5〉는 종속변수인 경상북도 기혼남성의 일일 육아참여시간과 자녀돌봄 인식에 대하여 성역할 인식(전통적 남성성, 성평등한 태도)과 연령대, 최종학력, 맞벌이 여부, 근로 유형, 근로 영역의 그룹핑을 통한 평균 차이 검정을 실시한 결과이다. 전통적 남성성과 성평등한 태도 변수의 경

우에 평균값을 기준으로 평균값 미만의 그룹과 평균값 이상의 그룹으로 임의 구분하였고, 연령대는 30대와 40대, 근로 유형은 정규직과 그 외, 근로 영역은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하여 일일 육아참여 시간과 자녀돌봄 인식에 대하여 t테스트를 실시하였다. 학력의 경우 고졸이하와 대학교(전문대 및 4년제) 이하, 대학원 이상의 세 그룹으로 구분하여 anova 검정 및 scheffe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맞벌이 여부는 외벌이 그룹과 맞벌이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일일 육아 참여시간에 대해서 전통적 남성성, 성평등 인식의 상하 그룹의 평균차이가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였고, 이는 전통적 남성성이 높은 그룹의 일일 육아 참여시간이 전통적 남성성이 낮은 그룹에 비해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균 시간은 전통적 남성성 상 그룹이 126분 이었고, 하 그룹이 100분으로 나타나 26분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t=-3.356, p=.001$). 성평등 태도의 상 그룹과 하 그룹에서도 통계적 유의미성이 나타났다. 성평등 태도가 높은 그룹의 일일 육아참여 시간은 124분 이었고, 성평등 태도가 낮은 그룹은 100분으로 나타나 약 24분 정도의 평균 시간 차이를 보였다($t=-3.008, p=.003$).

연령대, 근로유형, 근로영역에서도 통계적 유의미성이 발견되었다. 연령대의 경우 30대가, 근로 유형에서는 정규직일 경우, 근로 영역에서는 공공 영역일 경우에 일일 육아참여 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맞벌이 여부와 최종학력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았다.

자녀돌봄 인식에 대해서 평균차이 검정을 실시한 결과 연령대와 맞벌이 여부를 제외하고 모든 그룹에서 평균차이의 통계적 유의미성이 발견되었다. 전통적 남성성과 성평등 태도의 경우 '상' 그룹의 자녀돌봄 인식이 높았고, 정규직이 아닐 경우, 공공 영역에서 근로할 경우에 자녀 돌봄 인식이 높았다. 최종학력의 경우 f검정이 유의하였고, scheffe검정 결과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돌봄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령별 그룹에서는

통계적 유의미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표 5〉 평균차이 검정 결과

대상변수	그룹		N	평균	표준 편차	t/F	p value
일일 육아 참여 시간	남성성	평균 미만	244	100	79.56	-3.356	.001
		평균 이상	249	126	93.87		
	성평등	평균 미만	223	100	78.98	-3.008	.003
		평균 이상	270	124	93.56		
	연령대	30대	237	126	89.58	3.024	.003
		40대	256	102	85.06		
	최종 학력	고졸 이하	43	94	75.61	1.598	.203
		대학교 이하	392	113	89.11		
		대학원 이상	58	126	87.80		
	맞벌이 여부	외벌이	211	116	96.71	.789	.430
		맞벌이	282	110	80.91		
	근로 유형	정규직	403	115	83.05	-2.571	.010
		그 외	77	89	77.03		
	근로 영역	공공	120	129	90.46	2.190	.029
		민간	373	108	86.73		
	자녀 돌봄 인식	남성성	평균 미만	244	2.91	.43	-5.681
평균 이상			249	3.13	.44		
성평등		평균 미만	223	2.84	.40	-8.645	.000
		평균 이상	270	3.17	.44		
연령대		30대	237	3.04	.46	.847	.398
		40대	256	3.01	.44		
최종 학력		고졸 이하	43	2.81	.66	8.811	.000
		대학교 이하	392	3.02	.43		
		대학원 이상	58	3.18	.35		
맞벌이 여부		외벌이	211	2.98	.45	.179	.858
		맞벌이	282	2.97	.50		
근로 유형		정규직	403	2.82	.57	-3.605	.001
		그 외	77	3.06	.42		
근로 영역		공공	120	3.10	.39	2.040	.042
		민간	373	3.00	.46		

다음 <표 6>은 연구모델에서 설정한 모든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제시한 표이다. 표상에서 1번과 2번이 이 연구의 종속변수인 일일 육아 참여 시간과 자녀돌봄 인식이다.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일일 육아참여 시간(1번)의 경우 자녀돌봄 인식, 근로유형(정규직일 경우), 전통적 남성성, 성평등 태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관계성을 보였다. 연령, 근로영역(공공영역일 경우), 막내자녀 연령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관계성을 나타내었다. 자녀돌봄 인식(2번)은 학력, 근로유형(정규직일 경우), 전통적 남성성, 성평등 태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관계성을 보였으며, 근로영역(공공영역일 경우)과는 부적(-) 관계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상관관계 분석 결과

구분	1	2	3	4	5	6	7	8	9	10
2	.313***	1								
3	-.132**	-.054	1							
4	.064	.163***	.047	1						
5	.004	.017	.003	.201***	1					
6	-.036	.010	-.103*	.000	.369***	1				
7	.117*	.200***	-.146**	.143**	.093*	.057	1			
8	-.098*	-.092*	.046	-.263***	-.084	-.099*	-.134**	1		
9	-.257***	-.037	.394***	-.055	.121**	.069	-.112*	.112*	1	
10	.171***	.269***	-.102*	.092*	.049	.215***	.041	-.159***	-.058	1
11	.192***	.428***	-.111*	.081	-.015	.053	.065	-.061	-.056	.340***

1= 일일 육아참여 시간, 2=자녀 돌봄 인식, 3=연령, 4=학력, 5=소득, 6=맞벌이 여부, 7=근로유형, 8=근로영역, 9=막내자녀 연령, 10=전통적 남성성(높을수록 전통적 남성성), 11=성평등 태도(높을수록 성평등 지향)

다음 <표 7>은 이 연구의 최종 분석단계인 일일 육아시간과 자녀돌봄 인식에 대한 독립변인의 통계적 유의미성과 영향력을 검정한 결과이다. 일일 육아시간을 종속변수로 한 모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7.306$, $p<.001$), 수정된 R^2 값이 .123으로 나타나 모델의 설명력은 12.3%로 나타났다. 이 모델에서 유의미성을 나타낸 변수는 '막내자녀 연령'과 '성평등 태도'로서 막내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성평등한 태도를 가질수록 일일 육아시간이 늘어난다는 결과이다.

자녀돌봄 인식을 종속변수로 한 모델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16.716$, $p<.001$), 수정된 R^2 값이 .228으로 나타나 모델의 설명력은 22.8%로 나타났다. 이 모델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인 변수는 '학력', '근로유형', '전통적 남성성'과 '성평등 태도'로 나타났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민간영역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전통적 남성성이 높고 성평등한 태도를 보일수록 자녀돌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하여 세 가지 차원의 중요한 함의를 제시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일일 육아시간과 자녀돌봄 인식 모두에서 '성평등 태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연구의 분석에서 일일 육아시간이라는 실태적 변수와 자녀돌봄 인식이라는 추상적 차원의 변수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변수가 '성평등 태도'였다. 이는 성평등한 태도를 높이려는 사회적, 제도적 노력이 올바른 방향임을 지지해주는 결과이고, 아울러 남성의 성평등한 태도를 고취시킬 수 있는 다양한 차원의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자녀돌봄에 대한 자기 보고적 인식은 실제 행동과는 괴리가 있을 수 있고, 특히 배우자의 관점에서는 다소 납득이 되지 않는 측면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인식의 차원에서 변화가 수반되지 않으면 행동의 변화를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인식의 변화는 중요하다.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행위의 변화가 가능한 환경을 만든다 할지라도 인식이 변화되지 않으면 목표로 한 행동으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 한국 사회 남성에 대한 연구결과는 성평등한 인식이 진보적인 방향으로 나타나나 실제 생활에서 그만큼의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괴리감이 큰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평등한 인식이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뚜렷하게 성평등한 인식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실제 행동(일일 육아시간)과 인식의 차원(자녀돌봄 인식)에 있어서 각기 다른 원인변수가 나타났다는 점이 중요한 논의의 지점이 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자녀돌봄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인식과 태도를 가진 남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인식과 태도가 현실에서 실증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목표를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분석 결과에 따르자면, 실제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유의미성을 보인 것은 가구의 특성 중에서 막내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그러하다는 점이다. 막내 자녀가 어릴수록 이라는 의미는 앞서 논의한 요구-반응성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즉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가구 내에 존재한다는 것이 남성의 육아를 늘린다는 것인데, 이것이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진다는 것은 어린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돌봄이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아버지 효과(father effect)가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조심스러운 추측과 함께,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한 자녀돌봄의 공백이 보다 남성의 돌봄에 대한 요구와 반응성을 이끌어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한편 어린 자녀가 아예 없는 가족과 있는 가족은 돌봄에 대한 요구 자체가 있고 없음으로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논의의 전제가 달라지나, 이 연구에서는 만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기혼남성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어린 자녀에 대한 남성의 돌봄이 가구 내에서 돌봄의 요구로서 기능했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이러한 부분이 사회적인 인식의 확산일지, 아니면 영유아에 대한 돌봄을 자녀에 대한 투자로서 접근된 것인지 등등의 다양한 논의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한계점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행동과 인식에 있어서 전통적 남성성과 성평등한 태도가 동시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과도기적 남성성에 대한 논의점을 찾을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전통적인 남성성은 기존의 가부장적 성격을 보이는데 기술통계 결과 중간점수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보였고, 성평등한 태도에 있어서는 상당히 진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즉 이 두 변인이 공존하고 있는 남성들이 표본 내에서 일정 정도 존재하고 있고, 상관관계 분석에서도 두 변인이 약하지만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임으로서(〈표 6〉 참조) 공존의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보였다. 한편 이러한 결과는 자녀돌봄 인식이라는 추상적 차원에서 유의미성을 보였고 일일 육아시간이라는 행위에 있어서는 성평등한 태도 변수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전통적 남성성은 여전히 남성들 안에 강하게 남아있고 다만 사회전반에 흐르는 자녀돌봄에 대한 바람직성을 추상적으로 학습하고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자녀돌봄의 측면에서 과도기적 남성성을 보이는 남성들은 자녀돌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면서도 일 중심일 수밖에 없는 관성을 보일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부분은 젠더 가설에서도 논의하는 바, 사회 통념적으로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성역할 인식 영향력의 결과이자, 성평등한 사회를 지향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와 다양한 학습에 노출된 남성의 성역할 태도가 어느 정도 전통성을 벗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두 종속변수 모두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이 나타나지 않은 변인들은 연령, 소득, 근로 영역, 맞벌이 여부였다. 연령의 경우 30대와 40대라는 비교적인 동질적인 연령 그룹임을 고려할 수 있고, 소득과 근로 영역의 경우 이 연구의 조사응답자가 대부분 정규직이고 소득의 차이가 크지 않은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다소 연구의 한계로 여겨진다. 맞벌이 여부의 경우 맞벌이와 외벌이라는 구분은 가능하나 30대와 40대라는 비교적 젊은 세대의 남성이라는 점에서 육아시간이나 자녀돌봄의 인식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표 7〉 일일 육아시간과 자녀돌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결과

	일일 육아시간				자녀돌봄 인식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t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t
	B	표준 오차	베타		B	표준 오차	베타	
(상수)	89.512	53.919		1.660	1.531	.276		5.557
연령	-.571	1.032	-.027	-.553	.001	.005	.008	.174
학력	2.034	4.843	.020	.420	.055	.025	.095	2.204*
소득	3.518	2.581	.065	1.363	-.002	.013	-.007	-.152
근로유형	13.737	10.020	.061	1.371	.201	.051	.162	3.924***
근로영역	-11.754	8.727	-.062	-1.347	-.006	.045	-.006	-.133
막내 자녀 연령	-24.257	5.152	-.227	-4.708***	.010	.026	.017	.388
맞벌이 여부	-10.436	8.080	-.062	-1.291	-.049	.041	-.053	-1.188
전통적 남성성	9.726	5.760	.081	1.689	.093	.029	.141	3.171**
성평등 태도	21.153	6.742	.145	3.138**	.295	.034	.368	8.565***
F	7.306(p<.001)				16.716(p<.001)			
R ²	.350				.242			
수정된 R ²	.123				.228			

5. 결론 및 논의

2000년대부터 남성성이나 남성의 육아에 관한 연구가 점점 활성화 되면서 상당 부분 합의에 이르고 있는 부분은 전통적 남성성이 줄어들고 여성성에 대한 수용이 높아진다는 점일 것이다. 물론 이러한 부분을 보다 깊게 분석해보면 성평등에 가까워졌다기 보다는 새로운 남성성의 출현으로 설명될 수도 있다. 이 연구에서 종속변인으로 삼은 자녀양육의 측면에서 실제 남성들의 삶은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몇몇의 질적 연구를 보면 육아휴직을 감행하고, 남성으로서 육아를 전업으로 하는 비교적 긴 시간을 경험함으로써 부성이나 돌봄적 남성성을 발견한다는 긍정적인 변화의 가능성이 포착된다. 하지만 생활시간조사와 같은 실증 데이터를 통해서 보면 10년 전이나 20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실망감이 든다. 다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추상적인 차원에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성평등한 사회를 지향하고 구현하기 위한 좋은 동력이 되고 있다고 본다.

대구 지역의 남성들을 중심으로 남성성의 변화 양상을 살펴본 성지혜(2018)는 질적인 분석을 통하여 남성의 미시적인 성역할 인식의 변화는 빠르나, 사회적 통념이 여전히 완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하였고, 지역성이 가진 뿌리 깊은 문화와 분위기를 넘어서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서술하고 있다. 또한 남성을 세대별로 구분해보면 이전의 아버지 세대에 비해서 현재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아버지들은 전통적인 남성성과는 많이 다름을 스스로 강조하는 한편 일중심의 문화, 일상 속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인하여 성평등한 인식으로의 전환이 오히려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전통적 남성성에 '포획'될 수 있는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고 논의하였다.

이러한 부분들은 이 연구의 실증적인 분석에서도 맥락적으로 잘 들어맞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전통적인 남성성과 성평등한 태도가 공존하고 있고, 전통적인 남성성이 자녀돌봄 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가부장적 성격의 태도는 여전히 남아있는 채로 자녀돌봄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정책적으로 남성의 육아휴직을 비롯하여 다양한 차원의 일가정양립 지원책들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있으나, 소득 보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남성의 가부장성을 줄이고 성평등을 지향하는 교육의 이수라는 조건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본다.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단순히 가정 내 머무

르는 시간을 제공해주는 것이 아니라 남성이 가정 안에 머무르며 가정의 일원으로서 가사노동을 수행하고 자녀나 배우자를 돌보는 역할을 실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제도를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가정 내 행동에 까지 미치기는 어렵다.

오히려 제도적으로 더 면밀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기업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스웨덴의 경우 2002년에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육아휴직을 할당하는 강제적 성격을 전격적으로 도입하였고 이를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하였다(강수돌, 2020). 기업의 입장에서는 가혹할 수 있으나, 이러한 조치가 당연하게 되기까지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필수불가결한 조건이 됨은 자명하다.

학술적인 차원에서 남성의 자녀돌봄이나 가사노동은 어찌보면 당연한 성격의 것이지만, 남성의 행복이나 웰빙의 차원에서 보다 조명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남성이라고 해서 일중심의 삶이-경쟁과 희생으로 점철되어 있는- 삶에 대해 충분한 의미를 부여하고 가족에게 떳떳한 것은 아닐 것이다.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따르면, 일중심의 삶과 경쟁에서 승리하는 남성의 이미지는 얼마 되지 않는 소수의 엘리트 남성이 만들어낸 신기루와 같다. 일과 가정 모두에서 승리한 남성은 현실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들며, 이러한 허구적인 남성성으로 인하여 스스로를 불행하게 하기도 한다. 가부장적 남성성과 성평등한 남성성이라는 두 인식이 충돌하는 과도기의 시간 속에서 가정 내에서의 제 역할을 찾고 일가정양립이 남성의 웰빙에 진정으로 긍정적인 기여를 하기 위한 연구와 관심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수돌(2020), “스웨덴 남성의 육아휴직 경험과 윤리경영”, 『윤리경영연구』, 제20권 제1호, 33-66쪽.
- 김양지영(2016), “남성의 돌봄 실천과 성별 분업 해체 가능성: 아버지의 자녀양육 경험 비교를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제33권 1호, 35-67쪽.
- 김진욱(2005), “근로기혼여성의 이중노동부담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57권 3호, 51-72쪽.
- 김진욱·권진(2015), “아버지들의 육아휴직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사회정책』, 제22권 3호, 265-302쪽.
- 김혜영·황정미·선보영·김동기(2008), 『남성의 부성경험과 갈등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나성은(2014), “남성의 양육 참여와 평등한 부모 역할의 의미 구성: 육아휴직 제도 이용 경험을 중심으로”, 『페미니즘 연구』, 제14권 2호, 71-212쪽.
- 마경희·문희영·조서연·김리나(2017), 『지배적 남성성의 균열과 변화하는 남성의 삶: 남성들 내부의 차이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마경희·조영주·문희영·이은아·이순미(2018), 『성불평등과 남성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베이넨, 존(2011), 『남성성과 문화』, 임인숙·김미영 옮김,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Beynon, J.(2001), *Masculinities and Culture*, Philadelphia: Open University Press.
- 성지혜(2018), “남성들의 돌봄 참여 실태와 남성성의 변화 양상-대구지역 기혼남성들의 가사·육아를 중심으로”, 『여성학연구』, 제28권 제2호, 87-121쪽.
- 손능수·김진욱·권진(2020), 『경상북도 남성 육아 참여 실태와 지원방안』, 경북: 경북행복재단.
- 우성범(2019), “한국 남성의 남자다움은 무엇인가?: 남성성에 대한 개념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제25권 3호, 203-229쪽.

- 유지영(2018), “근로 변인과 성역할 변인이 남성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제34권 1호, 301-322쪽.
- 윤현경(2010), 『아버지의 정서적 공감과 양육참여가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동옥(2014), “아버지 양육 담론의 한계와 대안적 부성”, 『젠더와 문화』, 제7권 2호, 147-180쪽.
- 이창순(2014),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40권 2호, 29-54쪽.
- 이현아·김선미·이승미(2016), “학령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가사노동시간과 자녀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0권 2호, 231 - 461쪽.
- 주은선·김사현·김민성(2014), “한국 부모의 미취학아동 돌봄시간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제30권 2호, 367 - 400쪽.
- 최세은·정은희·최슬기(2019), “남성육아휴직의무제를 통한 아빠노동자 탄생에 관한 사례연구”, 『가족과 문화』, 제31권 4호, 1-29쪽.
- 최지은·김현경(2019), “아버지 직장의 가족친화제도가 아버지, 어머니,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육아정책연구』, 제13권 2호, 145-169쪽.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1), “코로나19 이후 일·돌봄 변화와 돌봄정책 개선 과제”, 『KWDI brief』, 제64호.
- 허수연(2008), “맞벌이가구 여성과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학』, 제24권 3호, 177-210쪽.
- Belsky, J.(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1), pp. 83-96.
- Craig, L.(2006), “Does Father Care Mean Fathers Share? A Comparison of How Mothers and Fathers in Intact Families Spend Time with Children”, *Gender & Society*, 20(2), pp. 259-281.
- Duvander, Ann-Zofie and Gunnar Andersson(2006), “Gender Equality and Fertility in Sweden: A Study on the Impact of the Father’s Uptake

- of Parental Leave on Continued Childbearing”, *Marriage and Family Review*, 39(1 - 2), pp. 121 - 142.
- Duvander, A. and M. Johansson(2019), “Does Fathers’ Care Spill Over? Evaluating Reforms in the Swedish Parental Leave Program”, *Feminist Economics*, 25(2), pp. 67-89.
- Esping-Andersen, G.(2009), *Incomplete Revolution: Adapting Welfare States to Women’s New Roles*, Cambridge: Polity.
- Evertsson, M.(2014), “Gender Ideology and the Sharing of Housework and Child Care in Sweden”, *Journal of Family Issues*, 35(7), pp. 927-949.
- Levant, R. F., K. B. Smalley, and M. Aupont et al.(2007), “Initial Validation of the Male Role Norms Inventory-revised” (MRNI-R), *The Journal of Men’s Studies*, 15(1), pp. 83-100.
- McHale, S. M., and T. L. Huston(1984), “Men and Women as Parents: Sex Role Orientations, Employment, and Parental Roles with Infants”, *Child Development*, pp. 1349-1361.
- Pleck, J. H.(1998), “American Fathering in Historical Perspective”, *Families in the US: Kinship and domestic politics*, pp. 351-361.
- Poulter, S. B.(2006), *The Father Factor: How Your Father’s Legacy Impacts Your Career*”, *Prometheus Books*, pp. 251-269.
- Ray, R., J. C. Gornick and J. Schmitt(2009), “Parental Leave Policies in 21 Countries: Assessing Generosity and Gender Equality”, *Center for Economic and Policy Research Report*, Washington D.C.
- Ricks, M. H.(1985), *The Social Transmission of Parental Behavior: Attachment Across Generation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 pp. 211-227.
- Smiler, A. P.(2004), “Thirty Years after the Discovery of Gender: Psychological Concepts and Measures of Masculinity”, *Sex Roles*, 50(1-2), pp. 15-26.

〈인터넷 자료〉

통계청(2021), “출산 및 육아휴직 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

idx_cd=1504 (검색일: 2021.12.18.).

(논문 투고일: 2021.10.30, 심사 확정일: 2021.12.01, 게재 확정일: 2021.12.19)

〈Abstract〉

A Study on the Influencing Factors on Men's Child Care Time and Perception: Focusing on Married Men in their 30s and 40s in Gyeongsangbuk-do

Kwon, Jin* · Son, NeungSu · Kim, JinWook*****

This study tested the influence of personal factors, household factors, occupational factors, and gender role perception as dependent variables, focusing on men in Gyeongsangbuk-do. As a result of the main analysis, the average score of traditional masculinity and the average score of gender equality perception were both high. This result appears to partly support the characteristics of transitional masculinity defined by the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18), and shows that Gyeongsangbuk-do men have both an identity of patriarchal masculinity still valid by social norms, and gender equality awareness, reflective of a new social atmosphere. Nex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common cause variable among the factors influencing the perception of child care and daily parenting time was 'perception of gender equality.' This proves the importance of education and efforts on gender equality that our society aims for.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a discussion was conducted on the policy direction related to gender equality and the current family balance policy.

Key words: masculinity, perception of child care, care time, work-family balance, gender equality awareness

* Lead author, Assistant Professor, Yemyung Graduate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Senior Research Fellow, Gyeongbuk Happiness Foundation

*** Co-author, Professor, Sogang University